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6·25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며 민간 외교 역할에 앞장 선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27일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종근)은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전달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08년 교육장학사업을 목표로 이종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대상 국가와 수혜 학생을 대폭 늘리고 장학금 액수도 1인당 연간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날 기부로 현재까지 44개국 2,745명의 유학생들이 누적 108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대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필리핀 출신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나(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올해는 한국 전쟁 7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로 수많은 희생의 결실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진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그 정신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근 이사장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 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우정교육문화재단 또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오늘의 장학금이

이종근 이사장, 16년째 장학금 기부...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 4억원 지급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 6·25전쟁 당시 유엔군 희생정신 기억해야



이종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부영그룹 회장)이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고국과 대한민국을,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인 스테파니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6·25전쟁 참전국의 유학생들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종근 이사장은 이들 참전국과 유엔군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데이(국제연합일)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기념했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항

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이 이사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16개국 전투지원, 6개국 의료지원, 38개국 물자지원)이 유엔 창설 후 최초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 동방에 대한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의 참전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한다면 미래 세대와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 60개국의 외교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영그룹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외에도 교육 기부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전국 130여 곳이 넘는 초·중·고·

대학교에 이 회장의 야호를 탄 기숙사인 '우정(宇庭)학사'를 기증하고, 우정학원을 설립해 전라남도 하순 능주중·고, 서울 덕원여중·고, 덕원예고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창원에 위치한 장신대학교를 인수해 신입생 전원에 게 1년 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宇庭)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의 기부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100대 기증을 비롯해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5개국에 학교 600곳, 교육용 질판 60만여 개, 디지털피아노 7만여 개를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준행 기자



HD현대삼호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한 '안전수칙 포켓북'.

HD현대삼호, 전 직원 대상 안전수칙 포켓북 배포

9개 언어별 안전수칙·점검항목 등 수록... 손바닥 크기로 휴대 간편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안전 가이드북을 전사에 제작·배포하며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도급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포켓북'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포켓북에는 ▲기본 안전수칙 ▲작업자 일반·절대 안전수칙 ▲생산현장 안전관리 세부 점검항목 등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포켓북은 가로 7cm, 세로 10cm의 손바닥 크기로, 휴대가 용이하며 현장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꺼내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돼 외국인 근로자도 무리없이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수칙 포켓북을 계기로 중대재해를 추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김희선 기자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취약계층 안전 확보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모뎀'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 지역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함평군은 28일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 두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지공동체는 낡은 방문을 새 문으로 교체하고 벽과 장판 보수 등 어르신이 홀로 고치기 힘든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택 내외부를 보수했다. 또한 집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조성봉 복지공동체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기며 힘겹게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솔루션하며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복지공동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의 문화가 지역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강진군수와 MZ직원들 '청렴' 주제로 솔직한 얘기 나눴다

강진군, 청렴주니어보드 제2차 회의 개최 호응

강진군이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나우(청렴주니어보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조직 내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직원들이 군수에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청렴나우 위원들은 사적 업무 지시, 불합리한 보고체계, 내부 소통 부족, 출장비·급량비의 불투명한 집행 등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별로 선정해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조별 제안서 발표 이후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사적 지시나

계층 간 의사전달 왜곡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조직의 청렴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군수에서 국장, 과장, 팀장으로 이어지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는 일이 실제로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체계는 부당 지시를 막고 책임 회피를 방지해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는 "청렴은 상명하복식 문화를 강요하는 환경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스템 위에서만 가능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노 패널티, 스트루 인센티브를 제



시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이러한 불공정성은 결국 비위와 부패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청렴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군수와 내부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청렴 문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진/손경설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속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